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⑳ 정각 이룬 싯달타 태자



▶ 한줄요약
고행을 거듭하던 싯달타 태자는 니련하에서 목욕을 한 후 수자타에게 우유죽 공양을 받는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며 정각을 이룬다. 천신들은 그곳에 사자좌를 만든다.

싯달타, 보리수 아래서 정각 이루다


그림 · 강병호

이번 회차에서 현전하는 〈석보상절〉 첫 번째 책 제3권을 다 읽는다. 모두 24권인데 현재 10권만 전한다. 3권의 내용은 팔상도의 두 번째 '비람강생'의 관상가 이야기부터 세 번째 '사문유관', 네 번째 '유성출가', 다섯 번째 '설산수도'까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석보상절 4권이 발견된다면 팔상도 여섯 번째 그림인 '수하항마'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마침 나는 이번 이야기의 무대인 수자타 마을을 30년에 걸쳐 두 번 다녀왔다. 처음 1990년 당시 인도를 갔을 때는 수자타 마을까지 가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운 좋게 그 동네 사람 안내로 나이란자라강과 유영굴, 전정각산, 수자타 마을과 수자타 사원을 갔다. 나는 그때 불교 문외한이었다. 그저 건기에 메마른 모래밭으로 변한 강과 돌투성이 산 전정각산에 허름한 굴에서 수행하는 티베트 노스님 두 명, 흙벽에 쇠똥 가득 말리는 한적한 농촌 시골 마을일뿐이었다. 특히 수자타 사원은 퇴락한 힌두사원으로 변해 천불이 새겨진 돌기둥만 한 귀퉁이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2020년에 다시 갔더니 그때는 못 봤던 수자타 공양탑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 가야(Gaya)역에서 내려 자전거 릭샤를 타고 하염없이 가야했던 보드가야에 공항이 들어서 있었다. 이것을 상전벽해라고 하는 것인가.

수자타 소녀와 우유죽

그때 한 장자(長者)의 딸이 쇠젖(우유)으로 죽을 쑤어 나무의 신령(樹神)을 공양(이바지)하려 하였다. 그 죽이 가마에서 열 자나 솟아올라 그릇에 담기지 않거늘 허공에서 말하였다.

'큰 보살이 저기에 계시다. 네가 전생에 발원한 것이 있으니 먼저 보살께 공양하여라.'

그 딸이 그 말 듣고서야 금으로 된 발우에 담아 니련수(尼連水) 가에 갔다.

수자타는 장자의 딸이었다. 그러나 경전에 따라 이름도 '선생, 난다발라, 난타바라'로 나오거나 촌장의 딸, 도사의 딸로 묘사되기도 한다. 우유에 코코넛과 쌀을 넣고 끓인 유미죽이라고도 하는 죽을 쑤어 원래는 나무의 신령에게 이바지하려 했는데 그 죽이 그릇에 담기지 않고 공중에 분수처럼 솟아올라 나무의 신령이 아니라 곧 정각을 이룰 보살께 금으로 만든 발우에 정성껏 담아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게 들린 허공의 소리는 그동안 사문유관과 여러 곳에 등장한 정거천이라고 〈과거현재인과경〉에 나와 있다.

니련하서 목욕한 싯달타

태자께서 니련하 물에 들어가 목욕하시거늘 제천이 여러 가지 꽃향을 물에 뿌리시니 나무의 신이 가지를 굽혔다. 태자가 가지를 당겨 나오시거늘 도솔천자가 하늘 가사를 입히셨다.〈釋詳3:41a〉

그제야 그 딸이 죽 가져가 들어서 머리 숙이거늘 태자가 받아 자시고 그 발우를 물에 던지셨다.

제석이 가지고 도리천에 가서 탑을 세워 공양하였다. 이 탑은 천상의 네 탑 중의 하나이다. 목욕하신 것이 부처의 나이 서른이시니 주나라 목왕 4년 계미년이다.

정각을 이루기 전의 호칭을 보살과 태자 두 가지로 부르고 있다. 태자가 니련하에 들어가 6년동안 고행하며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먼지로 뒤덮였던 몸을 씻는다. 하늘의 신들은 정각을 이룰 보살에게 갖가지 꽃향을 물에 뿌리고 나무의 신은 극한의 굶주림으로 힘없는 태자를 위해 가지를 드리운다. 태자가 그 가지를 의지해 겨우 물에서 나오니 도솔천자가 하늘 가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대령한다.

그제서야 수자타가 죽을 드리니 받아서 드시고 그 발우를 물에 던진다. 무려 금발우이다. 그 발우를 제석천이 고이 모셔다가 도리천에 탑을 세운다. 〈불설중허마하제경〉 등 다른 경전에는 물의 신인 용왕이 가져가자 제석천이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로 변하여 가져갔다고 한다. 그때 태자의 나이가 서른이라고 하니 우리가 아는 29세 출가와 35세 성도와 다른 경전을 선택한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육십삼장
니련수에 목욕하시고 나가리라 생각하시니 큰 나무 가지가 저절로 굽히니
보리수에 가려 하시며 먹을 것을 생각하시니 장자의 딸이 죽을 바치니〈월인23b〉

육십사장
가지를 잡으시고 뭍에 나오시거늘 도솔천이 가사를 입히옵나니
죽을 자시고 바리를 던지거늘 천제석이 탑에 간직하옵시니

> 니련하서 목욕재계한 싯달타
> 수자타에게 우유죽 공양받고
>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드니
> 천신들 그곳에 사자좌 만들어

떠나가는 다섯 비구들

태자께서 죽 드신 후에 모습이 예전과 같아지시니 교진여 등 다섯 사람이 뵙고 수행이 게을러지셨다고 여겨서 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보살이 혼자 필발라수로 가셨다. 필발라수는 으뜸이 누렇고 흰색이고 가지와 잎은 파랗고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니 부처께서 이 나무 밑에 앉으셔서 정각을 이루셔서 보리수라고도 하는 것이다.

부처께서 금강정(金剛定)에 드시므로 이 나무 아래를 금강좌(金剛座)라고 한다. 금강정은 굳은 도리에 일정(一定)한 것이다.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가 떠나고 홀로 필발라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는 장면이다. 결국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용맹정진을 하고 수행을 오래 하였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에 박힌다. 어쩌면 그리하여 금강같은 선정에 들 수 있는 것이다.

천지신명의 축하와 장엄

태자의 덕이 크시므로 땅이 진동하며 오백 마리 파랑새가 둘러싸고(圍繞) 날며 상서로운 구름과 향기로운 바람이 섞여 있었다. 눈 먼 용도 눈을 떠 상서로운 일을 보고 찬탄하였다. 어떤 가도(迦荼)라고 하는 용이 장수하여 과거의 세 부처의 성도(成道)를 보아 왔다. 세 부처는 구루손불과 구나함모니불과 가섭불이시다. 성도는 도리 이루는 것이다.〈釋詳3:42b〉

용이 권속을 데리고 향기로운 꽃이며 풍류이며 번(幡)이며 개(蓋)를 가지고 나와 공양하니 제천이 먼저 하늘의 번과 개를 가져다가 큰 나무 위에 달아 표식을 해 두었다.

인도(西天) 법도에 따라 모름지기 풀을 깔고 앉더니 천제석이 사람이 되어 공작의 목 빛같은 풀을 베어서 가거늘 태자 보살이 이름을 물으셨다.

제석이 대답하였다. '길상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풀을 공양하거늘 보살이 받아다가 깔았더니 땅이 진동하였다.

태자가 6년간의 고행과 수행 정진 끝에 정각을 이루자 땅이 온 몸을 흔들며 춤춘다. 오백 마리의 파랑새도 태자를 둘러싸고 하늘은 상서로운 구름과 향기로운 바람으로 가득하다. 눈 먼 용도 눈을 번쩍 떠서 그 모습을 찬탄한다.

용 중에 오래 산 가도라고 하는 용은 과거의 세 부처를 보았는데 이제 석가모니부처를 맞이한다. 그의 권속을 거느리고 향기로운 꽃과 음악, 번, 개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부처께 공양하니 하늘의 여러 신들은 한 발 앞서 하늘의 번과 개를 가져와 큰 나무에 꾸며 장엄한다.

인도에서는 풀을 깔고 앉아 참선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태자가 그에 따라 예사롭게 풀을 깔고 앉으니 천제석이 정각을 이루신 분을 위하여 사람으로 변해 공작의 목빛처럼 영롱한 상서로운 풀을 가지고 태자 옆을 지나간다. 이제 '태자보살'이 그 이름을 물으니 상서의 뜻인 '길상'이라고 대답한다. 경전마다 길상을 사람의 이름이거나 풀의 이름으로 해석한다.

팔만 보리수 위에 앉은 부처

그때 제천이 팔만 보리수에 사자좌를 만들었다. 사자좌(獅子座)는 부처의 자리이시니 사자는 중생들이 다 저어하므로 부처의 위엄과 덕을 비유하여 부르는 것이다.

그 나무의 높이가 팔천리도 있으며 사천리도 있으며 제천들이 여기기를 사자좌에 앉아 계시다 하거든 사납고 박복한 사람은 보살을 보고 풀 위에 앉아 계시다 하였다. 박복(薄福) 복이 별로 없는 것이다.

여러 하늘 신들이 부처를 위하여 보리수 팔만 그루에 사자좌를 만든다. 보리수의 높이가 4000리부터 8000리까지 다양하다. 제천들은 그 모든 자리에 부처가 화현하여 앉아있다 생각하는 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이제 보살이 된 태자를 보고 그저 평범한 풀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보인다. 그야말로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찬불가를 부른다.

육십오장
금강좌 꾸미고 사자좌를 세워 팔만 부처께서 앉아 계각기 보이시니
눈먼 용이 눈 뜨고 가도 용이 뵈옵고 네 분 부처의 공양을 이어서 하오니

육십육장
필발라수에 혼자 가실 제 덕이 중하시어 땅이 또 드러치니
길상 모초를 손으로 깔 적에 덕이 중하시어 땅이 또 진동하니〈월인24b〉

이렇게 〈석보상절〉 제3권은 끝인 듯 끝이 아닌 스토리텔링으로 맺는다. 위의 내용 중 8000리부터는 책이 헤져서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데 〈석가보〉와 관련 경전을 보충해 김영배 교수가 복원했다. 다음 회는 석보상절의 백미를 보여줄 석보상절 제6권의 라후라 출가이야기이다. 기대해도 좋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탄)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탄)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침향 향기나는 초
침 향 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 육각초 · 연꽃칠성촛대 · 침향 ·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 연꽃 크리스탈 촛대 ·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 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